

쌍치 피노마을, 관광마을 육성

순창군, 전통문화 예절교육·건강먹거리 컨설팅 교육 등 계획

순창군 쌍치면 피노마을이 역사와 문화 레저 체험이 가능한 농촌체험관광 거점마을로 본격 개발된다.

군은 쌍치 피노마을에 2018년까지 30억을 투자해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집중 육성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사업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거점마을이 중심이 되어 연계 가능한 인접마을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산물 등 마을특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체험마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쌍치 피노마을은 녹두장군 전봉준관이 위치해 있다.

동화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이 체포된 곳이기도 하다.

또 6. 25전쟁 당시 정부군과 빨치산의 소규모 전투가 빈번했던 장소로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장소들이 많아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 피노마을을 거점으로 인근 양촌마을과 둔전마을에는 전봉준장군 압송로, 훈공재, 선비의 길 역사문화 탐방로 등이 조성돼 있어 인근마을과 연계 가능성도 크다.

요골저수지, 추령천 등 자연환경과 정월대보름 행사 등 문화적 유산도 갖고 있다. 농촌체험관광 거점마을로 장점이 큰 지역이다.

군은 피노마을 일원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하드웨어 개발에는 숙박과 식당 기능이 가능한 농촌관광거점센터와 6. 25전쟁 당시 전투의 의미를 살린 서바이벌 체험장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녹두장군, 빨치산 등 근현대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예절교육, 건강먹거리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10명의 마을 주민을 농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또, 앞으로 동기화주민공동체 프로그램과 건강음식개발 프로그램 등의 주민교육을 실행할 계획이다.

신옥수 농촌 개발과장은 "최근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따라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농촌관광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며 "피노마을을 거점으로 동학농민운동과 6. 25전쟁 등 역사를 배우고 레저와 농산물 체험도 가능한 새로운 체험마을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남원시 대중교통 체계개선 용역'을 통하여 시민 교통편의 복지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

버스노선 조정·장기적 요금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 연구

남원시(시장 이환주) 대중교통이 더 편해진다.

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남원시 대중교통 체계개선 용역'을 통하여 시민 교통편의 복지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지역 버스이용 감소, 버스회사 적정부담 가중 등 교통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소외지역과 농촌지

역의 버스운영 비효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대중교통 체계개선 용역은 버스노선 조정, 지·간선제 노선검토, 중·장기적 요금제 개선 등 시민에게 가장 편리하고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연구된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이동호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인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이용' 제도에 대해 사업

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남원의 새로운 교통복지모델 실행방안으로 적극 검토한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사전협의가 선결(先決)되어야 하므로 우선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9월 2일에 완료되는 용역결과에 따라 2017년 대중교통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교통복지 만족도를 확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남원 광한루원 장원급제 행차 운영

17일까지 매주 화·수·금 오후 2시 30분 부터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의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춘향전을 각색한 '광한루원 장원급제 행차'를 운영하고 있다.

'광한루원 장원급제 행차'는 여름휴가철을 겨냥한 주중 상설 공연물로 관람위주의 형식을 벗어나 관광객과 출연진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연으로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화, 수, 금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운영된다.

공연은 광한루원 정문을 출발하여 춘향사당과 오작교 앞에서 손뻑치기, 제기차기, 닭싸움 등 민속놀이 게임을 하고 월매집을 거쳐 이도령과 그네뛰기, 어시(어제), 장원급제 퍼레이드 등을 관광객과 함께하면서 광한루원 동문에서 마

무리 된다.

이외에도 남원에서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인데, 낮에는 지리산의 시원한 계곡과 돌레길 트래킹을 하고, 춘향테마파크에서 관소리, 장구체험, 국궁체험 등을 할 수 있고, 밤에는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 및 광한루원이 '아름도 내사랑아!'를 보며 관광객의 참다운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의회(회장 배종철)는 유동 관광객 흡수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 개발 운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휴양관광도시로 적극 홍보하여 관광활성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여름방학 고창 갯벌생태교육 진행

28일까지 선착순 20명 모집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과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세계적인 고창갯벌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고창 갯벌을 찾는 가족과 단체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고창갯벌생태교육'을 진행한다.

랍사르고창갯벌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체험 위주의 갯벌 체험을 넘어 갯벌과 교감하고 갯벌생태계와 갯벌 생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창갯벌 보전의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고창갯벌생태교육은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방학기간을 이용해 한 달간 진행되며 매일 오전 프로그램과 오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2회, 선착순 20명 모집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갯벌인형극, 갯벌생물키만들기, 갯벌생물댄스배우기, 해양쓰레기 책놀이와 공작활동, 갯벌생물뼈박제를 이용한 갯벌놀이, 갯벌생물현미경관찰, 갯벌현장교육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고창갯벌생태교육 홈페이지(<http://gotidal.lat.modoo.at>) 또는 전화(063-560-2640)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순창서, 보행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횡단보도 보행신호잔여시간표시기 설치에 관내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13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잔여시간표시는 보행자에게 숫자로 잔여시간을 알려주어 보행자가 서두르지 않고 잔여 시간을 확인하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이다.

기존의 점멸 형태의 신호등 일 때는 남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가 무리하게 달려들어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나 숫자로 잔여시간이 표시돼 노약자나 어린이의 안전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치한 보행신호잔여시간 표시는 경천주공3거리 등 13개소 교차로 횡단보도에 60개가 설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신호 잔여시간 안내를 통해 보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잔여시간 시민성을 높여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축산물업소 위생점검 실시

남원시는 휴가철을 맞아 부정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8월 1일부터 3일까지 휴가철 대비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점검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포장·유통·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14개소), 축산물판매업소(195개소)중 유통량이 많은 대형할인매장과 휴가철 유통인구가 많은 관광지 주변 업소, 영세하고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소, 과거 적발사항이 있는 업소 등 잠재적 위해 우려가 있는 업소를 집중점검하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포장·보관·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보관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꼼꼼히 방문 조사한다.

점검 결과 관련사항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시정 및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철을 맞아 위생관리 취약으로 변질·부패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자 개인위생과 작업장 청결상태를 점검하여 식중독 등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공동체 통파티 개최

고창 공동체협의회(회장 이영근)에서 지난달 28일 고창 전통시장에서 관내 공동체협의회원들과 함께 '공동체 통파티'를 개최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 농업진흥과가 주최하고, 고창군 공동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고창군 내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장 상인들과의 일체감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동체협의회 이영근 회장은 "참여해 주신 공동체 회원들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장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고창에서 활동 중인 우리 공동체의 저변확대를 고민하던 공동체협의회와 전통시장활성화를 추진 중인 전통시장상인회(회장 최만영)가 지난 봄부터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낸 행사라서 더 뜻깊다"고 환영했다.

고창군 5일장인 28일에 맞춰 진행된 이날 행사는 'SNS를 이용한 홍보이벤트'와 '시장상인과 함께하는 홍보이벤트'와 함께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체회원들이 마련한 시식행사가 진행됐다. /고창=김영식 기자